

- 제1대 검단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

주민공청회 회의록

일 시 | 2026년 9월 28일(월) 오후 2시~2시 45분

장 소 | 검단구청 대회의실



(사회자 소개)

○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공청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의정비 개요 설명
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 및 결정 이유 설명
발표자 찬·반 의견 발표, 발표자 상호 간 질의 토론 후
방청객 의견제시 및 설문조사 실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 그럼, 지금부터 “제1대 검단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배경음악)

바로!

○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참석자 및 패널 소개)

○ 다음은 공청회를 진행해 주실 주재자와
발표를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재자를 맡아 주실

강현기 /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 다음은 발표자분들이십니다. - 의정비 잠정액에 대한 찬성의견 발표자 김래호님 이십니다. - 의정비 잠정액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자 송정호님 이십니다. ○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현기 위원장님 주재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제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 주재자를 맡은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강현기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제1대 검단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잠정금액 결정 경과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오늘의 토론 주제인 “의정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정비란, 지방의회의원에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①주민수 ②재정능력, 의정비가 결정되는 당해 ③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 ④지방의회 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4년간 정액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의정활동비는 지난 2023년 12월 14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의회의원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한도 상향되었습니다.
- 의정비를 심의·의결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되어 다음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며,
-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대 검단구의회의원에게 2027년~2030년 4년간 적용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2026년 8월 31일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2027년 검단구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26년 대비 8.5%를 인상하고, 2028년~2030년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 의정활동비는 15.38% 인상된 금액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방식으로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 2026년 현재 검단구의회 의원에게는 개편 전 지자체인 서구(현 서해구)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월정수당은 월 2,458,280원 의정활동비는 월 1,300,000원이며, 월 단위로 환산하면 매월 3,758,28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합산하면 45,099,360원이 됩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비는, 기준 금액인 2026년 서구(현 서해구)의회의원 의정비 대비 월정수당은 8.5% 인상된 2,667,234원으로 의정활동비는 15.38% 인상된 1,500,000원으로 연간 총액 금액은 50,006,808원이며,

이는 금년 지급액 대비 연간 약 4,907,448원 매월 약 408,954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 우리 위원회의 결정 내용 및 비교표는 나눠드린 설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8.5% 월정수당 인상 및 15.38% 의정활동비 인상 총 10.88%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주요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비 결정 기준사항을 적극 고려했습니다.

-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감에 따라 인상요인을 판단했을 때, 검단구는 7월 말 기준 인구 273,735명 의원정수 8명으로 의원 1인당 34,217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으며

- 이는 인천 11개 군·구의회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의원 개개인이 담당하는 민원 대응 및 정책 검토 등 주민 대표로서로서의 활동범위가 절대적으로 높은 여건임을 고려하였습니다.

② 다음으로, 신설 자치구 출범에 따른 의정수요와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하였습니다.

- 검단구는 2026년 7월 1일 출범한 신설 자치구로서 자치법규 체계 구축과 조직 및 행정체계의 기틀 마련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 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정책 검토 등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역할이 집중되고 있어

- 기존 자치구와는 다른 초기 의정수요 및 실적을 집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우리지역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와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여 적정기준을 정하는데 참고하였습니다.

- 2026년 현재 검단구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월 의정비는 376만원으로, 이는 2026년 광역시 내 자치구(44개) 월평균 의정비의 404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인구 30만 미만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도 의원정수 대비 의정비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검단지역은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지역으로

○ 향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행정 및 의정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의회의 역할이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검토 및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확대되고 전문성과 책임성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만큼,

○ 의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 지방의회의원은 비전임직이며 원칙적으로 겸직 및 영리행위가 허용된다는 점 등 또한 고려하였으나, 의원들이 겸직을 하면서 한층 고도화된 의정활동 등을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을 참고하였습니다.

○ 단, 신설 자치구로서 출범 초기 행정수요의 증가와 한정된 구 재정 여건, 서구와의 분구 이후 낮아진 지방자립도 그리고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단구의회가 요구한 인상률과 심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절충하여 의정비 잠정금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 토론 순서는, 두 분이 준비한 의견을 발표하신 후 토론자 간 질의 및 답변 방청인 질의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참고로, 토론자는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찬성과 반대 각각 한분씩 신청하여, 신청자 두분을 발표자로 선정 하였습니다.
- 발표 순서는 찬성 의견을 내신 김래호 님, 반대 의견을 내신 송정호 님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 참고로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 제한이 가능하며,
- 공청회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의 또는 발언 중지, 퇴장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먼저 제1대 검단구의회의원 의정비 잠정결정액의 적정성에 대해 찬성의견을 내주신 김래호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0분 내외로 진행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비인상에 찬성하는 발표자 김래호입니다.
- 오늘 저는 2027년도 검단구의회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번 안의 핵심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먼저 월정수당을 보겠습니다.
2026년 서해구의원 월정수당은 월 245만 8,280원, 연간 2,949만 9,360원입니다.

【김래호】

- 2027년 검단구의원 월 266만 7,234원, 연간 3,200만 6,808원으로 조정되는 안입니다. 월 20만 8,954원, 연간 250만 7,448원의 증가이며, 인상률은 **8.5%**입니다.
- 다음으로 의정활동비입니다.
2026년 월 130만 원, 연간 1,560만 원에서 2027년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으로 조정되는 안입니다.
-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상률은 **15.38%**입니다.
- 두 항목을 합하면 2026년 전체 의정비는 연간 4,509만 9,360원입니다. 2027년에는 연간 5,000만 6,808원입니다. 따라서 의원 1인당 연간 490만 7,448원의 증가됩니다.
- 이 숫자를 놓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가 올랐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조정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 이번 결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사유 중 하나는 검단구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가 34,217명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인천시에서 1위에 해당합니다.
- 의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주민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 의견을 듣고 지역 현안을 파악해야 할 범위도 넓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고, 예산을 심사하며,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 또한 지역의 교통, 주차, 교육, 복지, 도시개발, 생활환경 등 다양한 주민 현안을 의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 따라서 의정비를 결정할 때에는 의원 개인의 보상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여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의정활동비의 경우 명칭 그대로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과 관련된 항목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저는 인상안에 대한 논의에서 의정비 인상과 의원의 책임을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정비가 조정된다면 의원들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의정활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현장을 더 많이 찾아가며, 예산을 더욱 꼼꼼하게 심사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고,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이번 안에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27년 조정 이후에는 별도의 큰 폭의 조정보다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구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결국 이번 의정비 인상 문제는 단순히 의원들의 수입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점단구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의정활동 여건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주요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은 8.5% 인상, 의정활동비는 15.38% 인상, 전체 의정비는 의원1인당 연간 490만 7,448원 증가하는 안입니다.
- 그리고 결정안에서는 의원 1명당 주민 수 34,217명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인상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러한 수치와 검단구의 지역 여건, 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위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정비 조정에 걸맞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의원들은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 이상으로 2027년도 검단구의회 의정비 인상안과 관련하여, 인상안에 찬성하는 주요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자】

- 다음으로 송정호님께서 반대 측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역시 10분입니다.

【송정호】

- 안녕하십니까? 송정호입니다.
- 저는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민선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검단구의회의원 한 분 한 분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검단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으신 분들이십니다.
- 제가 발표 신청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이유는 단순히 심의회에서 결정한 잠정금액이 너무 높아서도,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 무조건적 비판을 하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닙니다.

- 제가 듣기로 8명의 검단구의회의원 중 5분이 초선 의원이고 지역사회와 검단구를 위한 의욕과 열의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 초선의원님들께서 지금 갖고 계신 초심이 기초의원 본연의 소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해당 지역 여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의정비”의 결정 역시 단순히 물리적 시간을 근무하고 지급 받는 일반 보수 혹은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검단구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잠정금액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 첫 번째,
“의정비”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말하는 보수가 아닙니다.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는 위원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합해진 금액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① 주민 수 ② 재정 능력 ③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④ 지방의회 의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구의회 의원은 단순히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임금 혹은 보수를 받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 해당 지역구의 주민 수와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당과 활동비를 받는 것이며, 이를 오롯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 저는 제1대 검단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1차 회의의 회의록을 읽으면서
- “의정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최저시급” “연봉”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지방의회의 평균 회기 일수가 80~100일 안팎으로 운영한다고 치면 지방의회의원은 한 해 평균 한주에 1~2회의 공식적인 출근 외엔 포괄적인 지역구 혹은 개인 활동이 보장되는 비전임직이며, 원칙적으로 겸직 및 영리 행위가 허용됨에도
- 겸직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복무규정에 맞춰 근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 혹은 일반 도시 근로자의 기준에 맞춰 의정비를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
검단구의정비심의회가 잠정 결정한 의정비 금액이 행정안전부에서 언급한 모든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숙려했는지의 여부입니다.
- 저는 검단구의회의 의원정수가
검단구 주민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완전히 동의합니다.
- 검단구의회 의원 1인당 주민수는 34,217명으로 제가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전국적으로도 무척 높을 거라 예상합니다.

- 또한, 검단구는 신설 자치구로서 조직의 안정화는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야 할 일도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검단구의회의원 역시 조례안 제정, 예산안 검토 심의 등 새로 개원한 초대의회의원으로써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신설 자치구이기에 새롭게 개원한 의회이기에 검단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 짐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검단구의 재정자립도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2026년 하반기 본예산 기준으로 19.56%라고 합니다.
- 의정비 기준금액이 분구 전 서구 금액이라고 했을 때 서구의 의정비는 인천시 군·구 내 2위였고 2022년 서구의 의정비가 결정되었을 때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30.99%였습니다.
- 과연 내년 검단구의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한정된 세입 안에서 신설 자치구인 검단구는 내년에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은 비단 검단구만의 문제는 아니며,
- 인천시 11개 군·구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대부분 월정수당을 동결하거나,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저 또한,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가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월정수당을 8.5% 인상하고 2028년부터 2030년 3년 동안은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매해 합산해서 지급한다는 위원회의 결정은
- 검단구의 재정상황과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는 좀 더 조심스럽고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의정실적입니다.
- 의정실적은 지난 4년간 해당 지방의회가 축적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 검단구의회는 올해 7. 1에 개원한 초대의회로 검단구의회의원들이 향후 검단구를 위해 많은 의정활동의 실적을 쌓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 행해지지 않은 미래의 “실적”을 근간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은 지난 “의정실적”을 의정비 결정의 고려사항으로 넣은 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회의록에는 검단구의 자치법규 현황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언급했지만
- 검단구 자치법규의 99%는 분구를 위한 필수 조례안을 검단구청장이 발의한 것으로 의원발의의 건수는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 여기 계신 주민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검단구의 개청과 검단구의회회의 개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도 큰 획을 그을 역사적인 사건이며
-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검단과 성장하는 검단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 자리에서 검단구의회회원의 앞으로 4년간의 의정비가 단순히 너무 높다 낮다를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 사실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너무 크고 검단구를 위해 열심히 뛰어줄 그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첫 시작하는 의회임만큼 검단구에서 일하는 많은 공직자들과 뜻을 함께 모아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 열심히 의정활동 하셔서 4년 뒤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그 실적을 인정받는 의회 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의정비에서 월정수당은 조금은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률에서 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정활동비는 2023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현실적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단구 의정비심의회에서는 이런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백오십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 이상으로 제1대 검단구의회의원 의정비 잠정 금액 결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자]	○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와 찬성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의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호]	○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종호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원들이 평균 회기 80일에서 100일 사이에 나뉘었을 때 주. 1~2회만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수치상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정호]	○ 이제 각 지역구만의 특성과 현실적인 문제를 별도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인 수치일 뿐이고 아마 그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래호]	○ 제가 주민자치회 활동도 하고 아파트 활동도 하면서 저는 의원님들의 민원을 내고 했을 때 아침 6시 7시에도 공사 현장도 같이 다녔고 밤 8시 9시에도 저희 단지에 오셔서 회의도 같이 하고 주말에 아파트 행사가 있으면 또 오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부르면 오거나 민원을 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획일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일하고 나머지 1 2회만 하니까 나머지는 어디 가서 알바라도 뛰라 그렇게 저는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꾸 타 군과 비교하는지 왜 다른 구는 저런데 우리 구는 저러나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왜 옆에 계양구에서 1만원 주니까 검단구도 1만원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신규 구라는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신규 구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 지금 신도시와 구도심이 같이 양존하는 사이에서 그 부분부터 해서 각종 교통 인프라 할 일이 많은데 이거를 꼭 타구와 비교하여 의정비나 활동비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반대 입장이라서 이 부분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정호]

○ 꼭 타구와 비교를 해서 수치상의 비교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생구이다 보니까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아직 행정 체제의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우리 주민 그리고 우리 의원들과 함께 조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그런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반대의견 발표자로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찬성자의 발표 내용들은 회의록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자]

○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하면 성함과

어느동에서 거주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자]

○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는 불로동 월드 아파트에서 왔는데 여기는 구도심이거든요. 심○분이라고 합니다.

구의원들 하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문제 같은 것도 구의원들이 하고 조례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을 여러 번 해봤지만 그거는 골치 아파서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돈을 주면서도 지금 주민들 얘기가 그래 이 시의원이 왜 필요하냐 민원을 넣어도 안 해주니까 제가 2년 3년을 걸려서 민원 넣어가지고 해결한 것도 있어요.

안 해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신도심 때문에 산 거라고 저희 진짜 구도심은 불편해요.

버스가 없어요. 버스가 뭐가 있어요?

이거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이 일상을 다 알거든요.

○ 솔직히 지금 이 돈 때문에 왈가불가가 아니라 요번에도 어떤 분이 신문에 났더라구요. 친인척 그래 가지고 나는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이슈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 구도심이라 신경을 써주세요.

○ 여기 논이었을 때 원당이랑 논이었을 때 저희 살았어요.

다 그런 걸 아시고서 얘기를 하셔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는 거에 따라서 수당이고 이런 거 배당이 되는 거지 얼마 얼마 어디는 어떻고 그건 비교표고 일하면 많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야 되는거지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주제자]	○ 지금 불로동에서 오신 심○분 주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를 하면 지난 기간 동안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한 바가 없으니 이제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방청자]	○ 그렇죠 하는 맞춰주는 거죠. 아니고 지금 이슈화된 사람들은 여기서 진짜 삭제시켜야죠. 그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주제자]	○ 심○분님께서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희 시나리오에는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찬성해 주시는 김래호님이나 아니면 반대해 주시는 송정호님께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의견이나 내용이 있으실까요? ○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듣고 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네 혹시 추가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시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청객 의견 수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단구 의회 의원 의정비 잠정 금액 적정성에 대해서 김래호 의원님의 발표에 동의해 주신 분은 안 계셨고 송정호님의 의견에 대해서 조건부로 정리해 주신 분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의정비 결정에 있어 조금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더 이상 추가 의견 없으시면은 오늘 참석해 주셔서 토론을
빛내주신 김래호님, 송정호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심○분
주민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 혹시 이 자리에서 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은 나눠드린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해주신 두 분, 토론자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검단구 의회 의원 의정비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모든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는 10월 16일
금요일에 열리는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회 검단구 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